

고교생 한옥 시공·드론 정비도 배운다

교육감 승인 거쳐 새 교과목 개설...광주 43·전남 91개 승인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변화 반영...일반고도 교육 가능

한옥시공·곤충산업·드론정비·드론운용·군대윤리·전쟁사 등 언뜻 보면 고교생들과 무관해보이는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고전과 첨단, 군(軍) 관련분야 등 각 영역을 넘나드는 탓에 수업하는 게 불가능해보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국·영·수 등 국가차원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과목(고시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 특성에 따라 새로운 분야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 각 학교는 교육감 승인을

거쳐 새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교과목을 보면 뜨고 지는 직업군, 시대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한옥시공·목공예·드론정비·드론운용·병원코디네이터·차재배기술·생선회실무·어류양식·전쟁사·군대윤리 등 91개 과목을 2018학년도 전반기 신설과목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 군별로 보면, 건설 교과에서는 한옥시공·한옥건축·목공예·목조건축·목구조시공·목재가공·인테리어 디자인 제도 등 10개 과목이 신설됐다.

기계 교과에서는 드론정비·드론(무인기)운용·콘크리트 공기계 운전·블도저 운전 등 13개 과목이 승인됐다. 보건복지 교과에서는 병원코디네이터 등 4과목이 기초과목으로, 요양지원·병원안내·사회복지면담 등 3과목이 실무과목으로 신설됐다.

섬과 바다를 품고 있는 전남의 특성을 교실로 가져온 과목도 있다. 농업·수산·해양교과에 신설된 어류양식·패류양식·유기농업·차재배기술·생선회실무·곤충산업·식품제조설비 등 13개 과목이다. 경제·금융교과에 새롭게 도입한 과목은 군(軍) 리더십·국방체육·군대윤리·독도법·항만물류·터미널 운영실무 등 19개 과목이다.

신설과목 대부분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 각 학교가 전남교육청에 신청한 것들이다. 교육감 승인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학교의 입지와 설립 목적, 지역 특색, 산업지형 변화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신규 과목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일부 고교의 경우 학생들의 대학진학만큼이나 취업 역시 학교와 교사들의 당면 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 상반기 병원코디네이터·애완동물마용·금융영어 등 43개 과목을 신규승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부, 남북 청소년 교류 나서달라” 광주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확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는 10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청소년들이 통일열차를 타고 북한의 청소년을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육부, 목포대 총장후보 재선출 요구

총장 공백 장기화 우려

지난해 선출된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로부터 임용되지 못했다.

10일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목포대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총장 후보자 선출을 다시 공고하라”고 통보했다. 총장 후보자를 새로 뽑으라는 의미다.

목포대 설립 이래 총장 후보자가 임용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거부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1순위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연구비와 관

련해 벌금을 선고받은 것과 연관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목포대는 총장 선출을 위해 기존 총장 선거추진위를 그대로 가동하느냐, 새로 꾸리느냐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장 선출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총장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목포대는 교무처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총장 선거를 통해 5명의 후보자 중 A, B교수를 각각 1, 2순위 후보로 선정, 지난 2월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왜곡 서주석 국방차관 퇴진하라”

광주시민단체 국방부 앞 회견

광주시민단체들이 10일 국방부를 방문해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과 오월어머니집 회원 20여명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차관은 5·18왜곡 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18을 왜곡하는 대책 보고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보고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지점과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988년 국회청문회,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모두 국방부에 몸담고 있는 5·18 은폐 당사자들이 죄를 덮거나 축소하려는 데서 비롯됐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차관이 직위를 유지하는 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 서차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국방부 이상욱 차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모두 국방부에 몸담고 있는 5·18 은폐 당사자들이 죄를 덮거나 축소하려는 데서 비롯됐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차관이 직위를 유지하는 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 서차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국방부 이상욱 차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6 해질 19:01 달뜨기 03:25 달지기 14:15

비 내리는 아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3/22	보성	비온뒤	12/21
목포	비온뒤	12/17	순천	비온뒤	12/23
여수	비온뒤	13/21	영광	비온뒤	11/18
나주	비온뒤	12/21	진도	비온뒤	12/18
완도	비온뒤	13/21	전주	비온뒤	13/20
구례	비온뒤	12/22	군산	비온뒤	10/17
강진	비온뒤	12/21	남원	비온뒤	13/21
해남	비온뒤	12/20	홍산도	비온뒤	9/14
장성	비온뒤	12/2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서~북서	1.0~2.0	북서~북	0.5~1.0
남부	남해	서~북서	1.5~3.0	북서~북	1.0~2.0
남해	남해	남서~서	1.0~2.0	서북~서	0.5~1.0
서부	남해	남서~서	1.5~3.0	서북~서	1.0~2.0
서부	남해	남서~서	2.0~4.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나쁨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35	17:02	10:45	23:05
여수	12:48	--:--	06:35	18:35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	☁	☁	☀	☀	☀	☁
7/22	9/20	10/17	7/14	6/19	8/20	9/20

광주·전남 고교 급식 위생관리 부실

식약처, 관리위반 5곳 적발

광주 일부 고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고교 급식소 2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A고교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하려는 목적으

로 보관했으며, 남구 B고등학교는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광주 동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외식산업은 위생적 취급 기준, 광산구의 D푸드는 시설기준 위반, 광양의 E영농조합법인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9056곳을 점검해 광주·전남 고교를 포함한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택시 1000원 더 내면 빨리 잡힌다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도입

스마트폰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에 호출비 1000원을 더 내면 빨리 잡히는 기능이 도입됐다.

10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을 이날 오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료 호출이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호출은 AI가 예상 거리와 시간, 과거 운행 패턴,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할 확률

이 높은 기사를 연결해 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스마트 호출 사용료는 1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 이용자가 기존 콜비보다 높은 금액을 내면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 배차’도 도입하려 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에 반대에 부딪혀 일단 연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지리산 남소제

제74회 지리산 남소제 제37회 군민의날 행사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행렬
남악제례
헌공다례
전통무예 시범공연 및 체험
구례향제출품류 공개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길거리 씨름대회

군민 한마당
군민체육대회(단체줄넘기 등 7종목)
군민노래자랑
KBS 전국노래자랑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약수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한지공예 전시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기념품 만들기 체험
국립공원 홍보관
탁탁아트 전시

경연·참여 마당
남악서예백일장 및 작품 전시회
전국 정가 시조경향 대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 문화재 그리기 대회

2018. 4. 17.(화)~20.(금)
화엄사시설지구 및 공설운동장 일원

주최·주관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구례군 문화재청
문의_061)780_2727